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대림절)

## 시편: 29장

후렴: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주께 바쳐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고 돌릴찌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놀성을 발하니  
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주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니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주의 소리가 참나무를 비트시고 숲들을 벗기시었네  
모든 민족이 그 성전에서 큰 소리 높여 영광이여 하고 외치도다

주께서 흥수 때에 좌정하시고  
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 성경말씀: 시편 43 장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 증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은총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주신 덕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만에 한 칸도 없는 것인데 무(無)의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33장

후렴: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너희 의인들아 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 불러 주를 찬미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시도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주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에 사는 자 모두 다 그를 경외하리로다

주의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생겨났고  
주의 명령 한 마디에 제 자리를 잡았나이다  
주께서 열방의 계획을 흘으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토록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들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여  
모든 인생을 두루 다 보시도다  
복되도다 그를 주로 삼은 백성들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지켜 보시도다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된 것이니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주의 눈이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 위에 있나니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주소서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기근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나니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 깊은 생각은 영원하시다)

### 성경말씀: 이사야 2 장 2~4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 증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分辨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궁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 오늘의 묵상 글:

사람 수고만큼 될 것은 율법입니다.  
그 이상 된 것은 은혜입니다.  
무엇이나 은혜라 율법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안팎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밖이요, 은혜는 속입니다.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대림절)

### 시편: 119장 9~16절

후렴: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주의 규범을 묵상하고 주의 도를 깊이 생각하리다)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8 장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증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현재 사랑을 하는 그 사람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잃은 양 한 마리,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무조건적, 절대 무상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사랑합니까?  
참사랑을 하시고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무위의 사랑입니다. '함'이 없이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사랑했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언어도 단입니다.  
신앙에서 그런 체험을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대림절)

## 시편: 48장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주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송하며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리니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불어내시니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그대로 우리가 보았도다  
만군의 주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익히 보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성전에서 주의 자비를 생각하나이다)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 장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여!  
저를 병으로 치심은 진실로 기이하신 대주재, 내 아버지의 사랑이시옵나이다.  
저를 더 자라게 하시고, 더 키우시려는 섭리인 줄 알아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대림절)

## 시편: 100장

후렴: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대저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 성경말씀: 예레미야 31 장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증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임은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고,  
태양을 초월하여 계시고,  
해도, 별도, 지구도 달도 없는 그곳에 어찌 연年, 월月, 일日, 시時, 분分, 초秒가 있겠습니까?  
임이 계신 곳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임이 계신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대림절)

시편: 117장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성경말씀:** 예레미야 33 장 14~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중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자기 원수는 자기 자애심(自愛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런 행복과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만 부인하면 자비와 지혜가 충만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손실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하느님을 소유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쓰시는 성령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집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뜻을 담지 못합니다. 갑자기는 안 되지만 듣고 또 듣고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믿어집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대림절)

## 시편: 150장

후렴: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좋아 찬양하리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리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 성경말씀: 이사야 11 장 1~10

이새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곱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불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불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무슨 일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될 것 같으나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나,  
되는 것은 무엇이나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님께서 그 뜻대로 잘 되게 하시고,  
될 듯한 일도 주님 뜻에 부당하면 안 되게 하시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대림절)

## 시편: 119장 129~136절

후렴: (주의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주의 법이 놀랍고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열망하기에 나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오니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춰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법이 놀랍기에 제 영혼이 그것을 따르나이다)

## 성경말씀: 에베소서 1장 3~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이 있으면 소리가 없고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곳은 평화요 따스합니다.  
문제는 사랑의 촛불이 되어 빛을 발하며 녹아지는 것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대림절)

### 시편: 65장

후렴: (하나님, 주를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서원이 채워짐을 보리다)

하나님이여, 주를 찬송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으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의 복을 실컷 누리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주께 희망을 두나이다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나이다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을 잠잠케하시며  
또한 만민의 흔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땅을 권고하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 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쪽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주를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시온에서 서원이 채워짐을 보리다)

### 성경말씀: 시편 4 장 1~5

내 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 증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알이 변화하여 생명을 얻으면 새가 되어 날고, 자아(自我)의 알이 깨지면 무아(無我)의 은총의 비둘기가 납니다.

---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대림절)

## 시편: 97장

후렴: (의인에게는 빛이 솟아오르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솟나이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리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원수를 불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 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는 자 망신을 당하고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주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뿐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에게는 빛이 솟아오르고 마음 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솟나이다)

## 성경말씀: 예레미야 23 장 5~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 증보기도:

일치의 주님, 공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훌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보람있는 생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이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시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81장

후렴: (우리 힘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하리로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찌어다

초승에 한 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구하여 주었노라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찌어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나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원수를 치리니  
주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체 할찌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리라  
그들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워주시어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이사야 64 장 3~6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 증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대지식가에게 심우(心友)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주님, 저의 심우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원수 된 저를 사랑하사 오히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신학에서 옳 얻습니다.  
마음의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성을 위해서 가장 우험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대림절)

## 시편: 147장 12~20절

후렴: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네 문빗장을 걷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흘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이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 성경말씀: 빌립보서 2 장 9~11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증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우리의 앉을 자리는 가장 끝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는 자리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대림절)

## 시편: 119장 33~40절

후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주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청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훼방을 내께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 성경말씀: 예레미야애가 3 장 55~58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 증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진리를 어기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탁 믿고 우리 생명 전부를 예수님 품에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품에 안아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바치지 의심스러우면 누가 바치겠습니까?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148장

후렴: (주의 이름만 홀로 높고 높으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양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찬양하리로다  
그의 모든 천사들아 주를 찬양하리로다  
모든 군대여 찬양하리로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리로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리로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주께서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주께서 또 그것들을 영원토록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여 찬양하여라  
그 말씀을 쪘는 광풍아 찬양하여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아 찬양하여라

과목과 모든 백향목아 찬양하여라  
짐승과 모든 가축아 찬양하여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새아 찬양하여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아 찬양하여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찬양하여라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주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찬양거리로다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만 홀로 높고 높으시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1 장 2~6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옵니다.

죄를 짓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대림절)

시편: 96장

후렴: (모든 민족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 드려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리로다  
주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하리로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전하고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리로다  
주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주께 돌릴찌어다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릴찌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께 경배하리로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찌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찌라

주께서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든 민족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려 드려라)

**성경말씀:** 이사야 26 장 7~9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첨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 증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것입니다.우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67장

후렴: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드러내소서  
또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성경말씀:** 미가 7 장 18~20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중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여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가까운 분들과 더 긴밀해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진실이 가까운 분들께 반영되어야 하겠나이다.  
제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57장

후렴: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들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그들이 스스로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깔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깔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크신 주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로마서 8 장 24~25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염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증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올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중병이란 주님 뜻과 제 뜻이 크게 다름이옵니다.  
다른 정도에 따라 정비례로 병세가 위독하거나 쉬울 것입니다.  
설사가 죄가 됩니다.  
다른 이 먹을 것을 제가 너무 먹어서 설사하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은 고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대림절)

**시편:** 64장

후렴: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음모를 꾸미니 그들은 누가 보리요 하나이다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이다

불의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저들은 꾸민 것을 숨기나이다  
저들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해아리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활을 쏘시리니  
저들은 당장 상처를 입으리라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맞아 쓰러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내저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사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49 장 13~15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

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목상 글:

속죄의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덕분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소치라고 성경에 증언하였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대림절)

## 시편: 100장

후렴: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대저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증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목상 글:

주님만 제 마음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필요로 않겠나이다.  
영원히 예수님만 필요로 요구하는 자식이 되어지기 심히 원하옵나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대림절)

시편: 117장

후렴: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46~55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훑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음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신앙의 길은 사랑이요, 성령이요, 하느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일상생활을 같이하십니다.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대림절)

**시편:** 150장

후렴: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좋아 찬양하리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리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 장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증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요, 내가 남을 어쩔까요, 내가 물질을 어쩔까요,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임은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고,  
태양을 초월하여 계시고,  
해도, 별도, 지구도 달도 없는 그곳에 어찌 연年, 월月, 일日, 시時, 분分, 초秒가 있겠습니까?  
임이 계신 곳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임이 계신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대림절)

**시편:** 135장 1~12절

후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의 종들아 찬송하라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아

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주를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주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주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주께서 너의 종에 징조와 기적을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라

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이며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성경말씀:** 베드로후서 1 장 19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증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사람 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참사람 되려고 해야지 남이 사람 못 만듭니다.  
자기가 참사람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대림절)

**시편:** 144장 1~9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훑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13~14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

**증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지식의 완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과학의 토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대림절)

시편: 146장

후렴: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여라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주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시온아 주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성경말씀:** 이사야 25 장 6~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증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은총이 감싸주시고 보호하는 동안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 물러가면 사람 마음은 일초도 서 있지를 못합니다.  
조석변朝夕變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절대 불안합니다.  
귀부인은 성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르침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시편:** 147장 1~11절

후렴: (예루살렘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리니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 상처를 싸매시네  
주께서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주께서 겸손한 자는 불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구름으로 보내시어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과 들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주는 먹을 것을 주시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13~14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

**증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사탄의 죄란 교만병입니다.  
선행은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겸허해야 할 자리입니다.  
겸손만 하면 인류에게 봉사할 희망이 있습니다.<sup>우</sup>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 시편: 147장 12~20절

후렴: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흘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이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 성경말씀: 시편 31 장 14~20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 증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이시여! 오늘도 아버님 뜻이 성취되어지이다.

성격이 원만해져 가는 것이 큰 구원인 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하옵니다.

조급한 성격, 분별없는 성격, 차별없는 성격, 용납 못하는 성격을 고쳐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 시편: 8장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위엄 찬송하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하며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관대 나를 이처럼 극진히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관대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바닷길을 다니는 물고기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성경말씀: 요한1서 1 장 5~7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증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저 같은 죄인도 의인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의로울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돋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 성경말씀: 골로세서 3 장 12~17

너희는 하나님으로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환난은 인내를 기르고, 인내는 영혼을 연단(鍊鍛)시켜서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고 굳세고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역할하는 것으로,  
환난이 심할수록 영혼에 소망이 있고 더 즐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 시편: 19장 8~15절

(주의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혀주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규례는 확실하니 모두가 다 옳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행여 교만에 빠질세라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는 온전하고 크나큰 죄에서 깨끗해지리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혀주도다)

## 성경말씀: 이사야 66 장 12~1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절을 빨 것이다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 증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공기는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이 우주의 숨이고, 천지만물의 숨이므로 그 숨은 우리들의 코와 폐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자비가 임한 곳에는 누구든지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 시편: 119장 1~8절

후렴: (주의 규정을 지키리니 이 몸을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사람들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을 소홀히 아니 할 때  
주를 참된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규정을 지키리니 이 몸을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 성경말씀: 요한1서 1 장 1~4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사랑, 용서, 그리고 평화.

사랑하다 보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어디 가면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용서할 때 형제간도 가정에도 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업체도 공동체 생활도 그 구성원들이 용서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송구영신

## 시편: 47장

(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찌어다  
지존하신 주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밭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리니  
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 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주의 것임이여  
주는 지존하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다)

##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증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44. 기어코 주님은

기어코, 기어코  
십자가 위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류와 화목할 수 없었기에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빛없는 캄캄한 땅속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기에,  
주님은 기어코, 기어코  
인류 화목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글 재편집)

---